

친환경차 급속 확산에 지역 車정비업소 ‘한숨’

광주·전남 전기차 등록 급증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확대
전용정비 교체비용 큰 부담
“최소한 생존권 보장해줘야”

“코로나19때 힘들었지만, 곧 정상화될 것이란 희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친환경차가 계속 늘어나는 지금 희망을 품기는 커녕 현 상황을 헤쳐 나갈 돌파구조차 찾기 힘드네요.”

20일 찾은 광주 북구 양산·본촌동 일대 자동차 정비소 밀집 지역. 연일 이어진 추운 날씨로 배터리 방전, 타이어 마모 등 차량 수리로 바쁜 한때를 보내야 하는 정비소에는 적막감만 감돌았다.

광주에서 10여년째 정비소를 운영 중이라는 김모(46)씨는 오전에 겨우 한두 손님을 받고는 하루를 공쳤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주변에 폐업했거나 폐업을 생각 중인 분들이 많다”며 “나조차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20% 정도 매출이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 어떻



20일 광주 북구 양산·본촌동 일대 한 자동차전문정비소에서 직원이 차량을 수리하고 있다.

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최근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촉진 정책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기존 내연기관차를 수리·정비하는 자동차 정비업소들마다 매출이 급감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력거래소가 지난 8월 발표한 ‘전기차 충전 및 이용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지난 2019년 8만

9918대에서 올해 5월 기준 45만731대로, 401.27%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보급률을 보였다. 광주지역 역시 같은 기간 2464대에서 1만303대로, 전남은 3326대에서 1만9966대로 각각 318.14%, 500.30%로 급증했다.

김씨는 “전기차가 들어오면 매년 돌려보내고 있다. 전기차는 기존 장비로 정비 불가능해 전기차 전용 장비를 새로 들

여야 한다. 차를 들어 올리는 리프트조차 절연이 되는 새 장비여야 하는데 투자금만 약7000만원에서 1억원이 든다”며 “정비소 사장들 대부분이 임대료, 대출금에 허덕이는데 그 큰돈이 어디서 나겠냐. 큰 돈을 들여 당장 바꾼다고 한들 신형차 보증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데 별이 없이 계속 적자일 순 없어 장비교체도 힘들다”고 말했다.

전기차로 인한 자동차정비업소의 위기는 비싼 전기차 전용 장비 투자금 외에도 올해부터 4등급 노후경유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이 되면서 더욱 심해졌다.

카포스(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연합회) 광주조합에 따르면 4등급 차량 대부분은 2007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생산돼 운행된 지 10여 년 정도가 된 차들로 정비업계에서는 해당 연식 차량은 폐차가 아닌 수리를 하면서 타야 할 한창때의 차량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수리할 수 있는 차량까지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정비소로 들어올 차량이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또 소규모 정비소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발맞춰 정

부 주도 전기차 정비 교육을 받고자 하지만 높아진 인건비, 공공요금에 홀로 정비소를 운영해 그조차도 쉽지 않아 교육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광산구 수완지구의 한 자동차정비업체 사장 이모(52)씨는 “전기차가 늘어나니 먹고 살길을 찾고자 전기차 정비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혼자 운영하다 보니 도저히 시간이 나질 않는다”며 “3~4시간짜리 교육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들어야 하는데 생업이다 보니 정비소를 닫고 갈 수가 없어 답답하다. 손해를 감수하고 교육을 받더라도 제조사들이 신차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아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박경주 카포스 전남조합 이사장은 “환경을 생각하는 정부 정책을 비난한 것은 아니다. 다만 친환경차 보급을 늘릴 때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체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한다”며 “내연기관 차량의 매연을 줄이는 매연저감장치(DPF) 지원금을 늘리거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교육 등 정비업계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켜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동지팔죽 먹고 건강한 새해 맞이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상무팔죽매장에서는 22일 동지를 앞두고 새알 동지팔죽을 선보인다. 동지는 24절기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긴 절기로 이날 팔죽을 먹고 묵은 기운은 떨쳐내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을 기원한다. 해당 매장에서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새알로 만든 동지팔죽을 찰쌀밥과 함께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목포 인구 4명 중 1명 ‘18~39세 청년’

통계청·목포시, 청년통계

청년인구 5만2728명 전체 24%
“맞춤형 청년 정책 발굴 박차”

목포 인구 4명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 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과 목포시가 발표한 ‘2023년 목포시 청년통계’ 결과에 따르면 목포시 청년 인구(18~39세)는 5만2728명으로 목포시 전체 인구(21만6939명)의 2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인구 비율은 지난 2018년 28.0%에서 2022년 24.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특히 원도심권 청년인구 비율은 21.9%, 신도심권은 27.5%로 신도심권이 5.6%p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목포시에 전입한 청년은 1만1125명으로 청년인구(5만2728명)의 21.1%를 차지했으며 청년 전입인구는 ‘25~29세’(27.5%)에서 가장 많고 주된 전입사유는 가족(28.7%), 직업(28.5%), 주택(23.8%) 등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의 경우 미혼 63.5%, 배우자 있음 34.0% 등으로 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은 남편 17.1건, 아내 21.5건으로 나타났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편 34.4세, 아내 31.1세로 전년 대비 각각 0.5세, 0.7세 높아졌으며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4명으로 전년 대비 0.04명 소폭 증가했다.

2022년 목포시 청년 일반가구(가구주 연령 18~39세)는 1만7061가구로 목포시 전체 일반가구(9만5985가구)의 17.8%

를 차지했는데, 청년가구의 유형은 1인 가구가 50.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목포시 전체 청년 중 주택을 소유한 인구는 7975명뿐으로 청년 인구의 15.1%를 차지했으며 이 중 남자는 4671명으로 청년 남자의 16.8%, 여자는 3304명으로 청년 여자의 13.2%를 차지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목포시 청년 고용률은 59.9%로 남자가 65.0%, 여자가 54.3%로 남자가 여자보다 10.7%p 높았다.

목포시 관계자는 “사회의 버팀목인 청년은 우리 모두의 현재이자 미래의 자산으로, 청년의 미래가 보장돼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도 보장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청년통계를 적극 활용해 청년들이 목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 및 일자리 등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AI사업단, 국내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나선다

업스테이지와 AI 활성화 협약
AI데이터센터 컴퓨팅자원 제공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AI사업단)이 챗GPT 등 생성형 AI 기술의 기반인 거대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LLM) 개발 지원과 국내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20일 AI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18일 AI사업단 회의실에서 AI스타트업 ‘업스테이지’와 함께 ‘인공지능 산업발전과 융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스테이지’는 최근 글로벌 AI 플랫폼인 허깅페이스에서 자체 개발한 모델로 오픈 LLM 역사상 최초로 챗 GPT의 벤치마크 점수를 뛰어넘는 성능으로 1위를 차지한 AI스타트업이다.

이번 협약은 국내 AI 산업과 생성형 AI 기술의 기반인 LLM 개발 기술의 발전을 목표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등 제반시설 지원 △신규 사업 기획 및 과제 발굴 연계 협력·과제 공동 수행 △인공지능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협력 △기술교류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인공지능 기술 확산을 위한 기업 지원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AI스타트업 ‘업스테이지’는 AI사업단의 AI데이터센터 컴퓨팅 자원 사용 신청 절차를 거친 후, 할당된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LLM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LLM 개발을 위해선 AI 모델 학습뿐 아니라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많은 양의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업스테이지’는 최근 자체 개발한 사전 학습 거대언어모델(LLM)인 솔라(Solar)를 공개했으며, 글로벌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모색하고 해외 시장 진출도 준비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활성화뿐만 아니라 LLM 개발 환경과 국내 AI 산업융합 생태계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활석 업스테이지 CTO는 “이번 AI사업단과의 협력으로 우수한 컴퓨팅 자원을 제공받아 원활한 LLM 개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업스테이지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빅테크에 필적하는 LLM 개발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은행, 자립준비청년에 의료용품 키트 전달

120명에 구급용품·영양제 제공

광주은행은 최근 굿네이버스 광주전남 지역본부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의료용품 키트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구급용품 및 영양제로 구성된 의료용품 키트는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통합사례관리대상 자립준비청년 중 120명을 선정해 전달했다.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영양지원이 부족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예방적 차원의 의료지원을 위해 준비했으며, 이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질병 치료가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200만원 금액 내에 긴급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광주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위해 월세 지원 및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임직원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원활한 네트워크 형성 방법 등을 전수하며 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고병일 은행장은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의 계층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